

“명품 나주배 육성”...나주시 맞춤형 현장 컨설팅 호응

신품종 배 신화·창조 재배 농가 21곳 대상 3회 실시 당도·경도 측정 등 지원 ‘재배-생산-출하’ 과정 점검

나주시가 수확기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통해 고품질 신품종 배 생산을 적극 지원했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나주배 고품질화, 생산량 확대를 목표로 모둠, 덕 시설 설치 지원에 이어 ‘재배-수확-출하’로 이어지는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현장 컨설팅은 지난 달 19일부터 26일까지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나주APC)이 국내 품종으로 육성하는 신화·창조 배 재배 농가 21곳을 대상으로 3회 실시했다.

배 전문가로 구성된 숙기 판정단은 8월 말로 예정된 수확·계통출하 작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농가에서 수확한 배의 당도와 경도 측정 등을 지원

했다.

지난달 말 출하된 신화·창조배는 나주시장이 품질을 보증하는 자체 브랜드 ‘천년이음 나주배’로 인터넷쇼핑 나주몰과 전국 롯데백화점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나주시는 ‘우리 품종 배 수출생산단지 조성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5억원을 들여 ‘신화·창조-수퍼골드’ 등 국내 육성 신품종 모둠 8000그루와 10ha 규모의 덕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나주시 지역 국내 육성 신품종 배 재배면적은 2018년 당시엔 전체 면적 대비 16%(320ha)에 불과했다.

하지만 나주시의 각종 지원에 힘입어 전체 재배 면적 대비 23%(410ha)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올해 배 생산량은 무재해 풍년 덕분에 지난해(3만7756t)보다 11%가량 증가한 4만2000t~4만4000t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추석이 평년보다 빨라 적기 수확을 통해 유통이 가능한 물량은 전년(3616t) 대비 10.7% 줄어든 3231t으로 전망했다.

올해 추석 나주배 선물 가격은 가장 물량이 많은 품종인 신고배 7.5kg 특품을 기준으로 5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의 종합 컨설팅에 참여한 한 과수농가는 “신품종 배 재배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생산 기반 지원과 함께 신품종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컨설팅으로 고품질 배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숙기 판정단이 나주배 신품종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종합 현장 컨설팅을 통해 숙기 판정과 당도 측정을 지원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아침밥이 보약”...화순군, 쌀 소비 촉진 팔 걸었다

9~12월 지역농협 등과 공조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나서

화순군이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화순쌀 소비촉진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화순군은 농협 화순군지부, 화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9월부터 12월까지 화순쌀 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최근 꽃강길 음악분수대 일원에서 화순쌀 소비촉진 운동을 펼친 데 이어 12~13일 추석 직거래장터와 화순고인돌마을꽃축제장에 화순쌀 홍보전시 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농협 화순군지부와 각 지역농협도 유통업체와 대량소비처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공동 홍보마케팅을 펼친다. 화순교육지원청도 화순초·화순제일초 등에서 릴레이 ‘아침밥 먹기’ 챌린지를 진행하는 등 쌀 소비 촉진 대열에 참여하기로 했다.

화순군은 ▲아침밥 먹기 ▲화순쌀 사주기 ▲추



화순군은 최근 꽃강길 음악분수대 일원에서 구북군 군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화순쌀 소비촉진 운동을 펼쳤다. (화순군 제공)

석 명절 화순쌀 선물하기 등에 군민과 향우회원들이 적극 참여해 주도록 독려하고 있다.

구원진 화순군 농촌활력과장은 “쌀값 안정과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이번 화순쌀 소비촉진 운동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돌발 위기상황 이렇게 대처하세요

경찰관 출신 김용갑씨 ‘행동대응 매뉴얼’ 책 펴내



다는 점에서 차별화했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 분야 의료인을 비롯해 특수학교 교사, 행동치료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필독서로 손색이 없다.

경찰 출신으로 대한위기대응안전관리사교육 협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갑(사진)씨가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담은 ‘위기상황 행동대응 매뉴얼’이라는 책을 내 주목을 받고 있다.

책은 다양한 위기상황에서의 행동대응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용서다. 각 상황에 적합한 신체기술을 사진과 함께 실어 누구나 쉽게 동작을 이해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실제로 손목을 잡혔을 때, 얼굴을 공격당할 때, 입으로 물려도 할 때, 어깨를 잡혔을 때, 침대에 눌지 않고 저항할 때, 앉아서 머리를 자해하려 할 때 등 신체 위기 상황 시 구체적인 대처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 씨는 “경찰공무원에서 퇴임한 뒤 전국 정신보건 영역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강연을 다니면서 공격행위자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는 행동대응 교육과 신체기술 훈련이 절실함을 느껴 집필하게 됐다”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격행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이 매뉴얼의 핵심이며 기치”라고 말했다.

호신술에 관한 매뉴얼이 돌발적인 공격행위자를 강력하고 제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매뉴얼은 공격행위자의 안전까지 보호하

나주 출신인 김용갑씨는 전남지방경찰청 마약 수사팀장, 나주경찰서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태권도 상무관 관장, 경찰태권도 광주전남 협회장, 국립나주병원 위기상황 행동대응기법 연구모임 지도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가을 길목 ‘함평천 팜파스그라스 꽃길’ 장관



함평천 꽃길의 팜파스그라스 경관. (함평군 제공)

함평군이 지역의 숨은 보석을 새롭게 선보이고 있다. 함평천 주변 자연길에 펼쳐진 ‘함평천 팜파스 꽃길’이 아름다운 경관 연출로 지역 주민 뿐 아니라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함평천 꽃길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고 주민들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산책코스 제공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연출되고 있다.

지역 특색을 살린 다양한 꽃들을 식재해 계절마다 변하는 꽃들을 선보이며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특히 2.4km 산책코스로 호평을 받고있는 팜파스그라스길은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만개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과 함평을 찾아와 주시는 방문객들이 현재 만개하고 있는 함평천 꽃길을 걸으면서 건강도 챙기고, 관광도 챙기고 행복할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돌아온 강진군 ‘불금불파’ 6~7일 방문 감사 이벤트

강진군이 무더위로 잠시 멈췄던 ‘불금불파’ (불타는 금요일에 불고기 파티)가 6일 다시 돌아온다.

강진군은 재개장하는 불금불파를 위해 6~7일 방문 감사 이벤트를 연다. 행사장에서 사용한 3만원 이상 영수증 지참 시 행사장에서 쓸 수 있는 불고기 1만원권 쿠폰, 냄비받침 경품을 제공한다.

5만원 이상 영수증 지참 시 3만원 이상 경품 혜택과 보은보냉백을 추가로 제공하며, 10만원 이상은 불고기 2만원권 쿠폰, 텀블러를 제공한다. 어린이에게는 LED 풍선을 증정한다.

추석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13일과 14일은 고향 방문 가족 사진 촬영 무료 이벤트를 개최한다. 고향을 방문한 가족이 부모와 함께 행사장을 방문하면 단체사진을 찍고 2장을 무료로 즉석에서 인화해 선사한다.

13일부터 경품추첨권을 제공하며, 9월에 응모한 추첨권은 28일에, 10월에 응모한 추첨권은 그달 26일에 각각 추첨해 사은품을 증정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담양 군도 5호선 봉산~연동 구간 확장 개통



1.35km 구간 1년 1개월만에 준공

담양군은 봉산면 신하리 일원에서 ‘군도 5호선 봉산-연동 구간 확장공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3일 열린 준공식에는 이병노 담양군수와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 이기복 NH농협 지부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

군도 5호선 봉산-연동 구간 확장공사 공사는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입, 2023년 7월 시작돼 지난달 완료됐다. 기존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못했던 봉산면 삼지리에서 연동리까지 약 1.35km의 도로 폭

을 6m에서 9.7m로 확장했다.

군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이동은 물론 담양 통합미곡종합처리장 등 지역 주요 시설로의 접근성을 개선, 농산물 운송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도로 확장은 지역 교통 기반 향상에 이바지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관계자들이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제45차 학술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5년 연속 ‘우수논문상’

서경순 박사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창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사)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제45차 학술대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창’ 및 3건의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학술대회에서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표고, 통종하초, 느타리, 트러플등 버섯을 활용한 품질 특성, 발효 기능성 확인 등 총 8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 중 ▲표고 식물성 유산균 발효물을 활용한 소

스의 품질 특성 ▲표고 필름과 저장온도에 따른 팽이버섯의 품질 변화 ▲유용 성분 함량에 따른 느타리버섯 염산의 최적 추출조건 확립에 관한 연구 등 3건의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5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서경순 박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 안전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창’을 받았다. /장흥=김용기 기자·충부취재본부장 kykim@

장성군립중앙도서관, 9월 ‘독서의 달’ 행사

박근모 작가 만남·미술·별문쇼

장성군이 ‘독서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연다.

장성군립중앙도서관에 따르면 21일에는 ‘부모의 독서가 시작되면 아이의 미래가 달라집니다’의 저자 박근모 작가와의 만남이 열린다.

학부모를 초청해 독서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미래 경쟁력 창출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같은 날 어린이 60명을 대상으로 한 ‘흥미진진 미술 & 별문쇼’도 열릴 예정이다.

29일에는 샌드아트 ‘모래가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기’ 공연이 펼쳐진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해 샌드아트 동화를 감상하고, 아이들이 직접 샌드아트도 만들어 본다.

도서관 밖에는 ‘캠핑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야외 마당에 텐트와 돛자리, 테이블 등을 설치한다.

이 외에도 ‘스릴만점 가상현실(VR) 체험’도 눈길을 끈다.

독서의 달에 어울리는 전시도 마련했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K(케이)-그림책’에선 해외에서 수상한 국내 작가의 그림책 15권을 만날 수 있으며 최영아 작가의 ‘달토끼’ 원화 전시도 열린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